쇼고지 절(聖護寺)

쇼고지 절은 기쿠치시 중심부의 북쪽에 있는 조동종 사원으로, 1300 년대의 한 시기에 기쿠치 가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. 이 절은 1338 년, 선종의 신봉자였던 13 대 영주 기쿠치 다케시게(1307-1341)가 창건했습니다.

다케시게는 히고국(현재 구마모토현) 출신으로, 10 년간 중국에서 배운 선종 승려 다이치(1290-1367)를 쇼고지 절의 주지 스님으로 불렀습니다.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인 와이후에서 도보로 꼬박 하루 걸리는 이 산속의 성지에서 다이치는 기쿠치 영주의 고민에 조언을 해주었습니다. 또한 다케시게의 동생인 다케미쓰(1319-1373) 등 일족의 다른 인물도 지도했습니다.

다케미쓰는 1340 년 중반에 기쿠치 가문의 영주가 된 후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에 쇼칸지 절이라는 새로운 절을 지었습니다. 쇼고지 절을 향한 관심이 줄어들어 다이치는 결국 절을 떠났습니다. 산속의 절은 황폐해졌고, 1940 년대에 나가사키의 선종 승려가 재건하기까지 500 년 이상이나 폐쇄된 절로 있었습니다.